

- 주요 뉴스: 미국 12월 S&P 글로벌 종합 PMI, '22년 3월 이후 최고 양호한 성장 기대 반영
 - ECB 라카르트 총재,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근접
 - 프랑스 중앙은행,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정치적 불안정 등을 감안
 - 중국 11월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세 둔화. 추가 경기 부양책 필요성 시사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2월 금리인하 전망, 양호한 경제 성장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하 기대,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중국 11월 소매판매 부진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제조업 경기 위축 우려,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장중 하락 전환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FOMC 앞두고 관망세 등으로 강보합
독일은 12월 제조업 PMI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36.1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8.0원, 0.14% 상승). 한국 CDS 하락

		12/16일	12/13일	전일대비			12/16일	12/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74.1	6,051.1	+0.38%	국채 금리 10y	미국	4.40%	4.40%	+0bp
	유럽	515.83	516.45	-0.12%		독일	2.25%	2.26%	-1bp
	중국	3,386.3	3,391.9	-0.16%		영국	4.44%	4.41%	+3bp
	일본	39,457	39,470	-0.03%	CDS 5y	한국	36bp	37bp	-1bp
	한국	2,489.0	2,494.5	-0.22%		중국	61bp	63bp	-2bp
환율	달러지수	106.86	107.00	-0.13%	위험 지표	EMBI+	-	355	-
	유로화	1.0512	1.0501	+0.10%		VIX	14.69	13.81	+6.37%
	엔화	154.15	153.65	-0.32%		WTI유	70.71	71.29	-0.81%
	위안화	7.2839	7.2736	-0.14%	원자재	구리	414.4	414.9	-0.13%
	원화	1,436.0	1,435.2	-0.06%		금	2,652.7	2,648.2	+0.1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2월 S&P 글로벌 종합 PMI, '22년 3월 이후 최고, 양호한 성장 기대 반영

- 12월 S&P 글로벌 종합 PMI는 56.6으로 전월(54.9) 대비 올랐고, 이는 '22년 3월 이후 최고 수준. 이번 결과는 확장의 기준 50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이 증가세에 있음을 보여주었고, 특히 세부항목 가운데 미래(향후 12개월) 생산이 71.1을 나타내며 '22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 다만 부문별로는 상반된 모습. 제조업 PMI는 전월비 하락(49.7→48.3)하며 내림세가 이어졌고, 세부적으로는 생산 및 수주가 부진. 또한 투입가격이 올라 트럼프 관세에 대한 잠재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서비스 PMI는 전월비 상승(56.1→58.5)하여 오름세가 지속되었고, 이는 '21년 10월 이후 최고치
- 전문가들은 종합 PMI에서 향후 12개월 전망이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 내년에도 양호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 신호로 평가(S&P Global). 다만 일부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율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가 제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
- 한편 이날 발표된 12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0.2를 기록하며 전월(31.2) 및 예상치(12.0) 하회. 세부 항목에서 원료 지급 가격이 상승한 반면 임금 상승률은 둔화. 그러나 트럼프 신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주요 투자은행, 내년 증시 위험 요인으로 트럼프 관세와 지정학적 갈등을 거론

- BoA, JPMorgan, BBVA의 스트래티지스트들은 내년 증시의 위험 요인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갈등 등을 언급. JPMorgan은 금년 평균 15.5를 기록한 CBOE 변동성 지수가 내년에 16.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

■ 유로존 12월 HCOB 종합 PMI, 전월비 상승. 서비스 부문이 호조

- 12월 HCOB 종합 PMI는 49.5를 기록하여 전월(48.3) 대비 상승. 제조업 부문은 전월비 보합(45.2→45.2)을 나타낸 반면, 서비스 부문은 확장의 기준인 50을 상회(49.5→51.4). 한편 향후 1년의 기업 활동 기대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 다만 일부에서는 독일 등 주요국의 제조업 활동 부진을 우려

■ ECB 라가르드 총재,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근접

- 인플레이션이 목표(연율 2%)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에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장기간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한 영향으로 지금은 미래 위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 권도스 부총재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화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발언
- 슈나벨 이사는 금리가 경기를 자극하지도, 혹은 억제하지도 않는 중립적 수준에 위치해야 하며, 이를 감안하면 금리를 점진적인 형태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

■ 프랑스 중앙은행,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정치적 불안정 등을 감안

-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1.2%→0.9%), '26년 성장률 전망치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1.3%→0.2%). 정치적 불안정이 기업과 가계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내 수요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 특히 재정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확실성 증가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

■ 중국 11월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세 둔화. 추가 경기 부양책 필요함을 시사

-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3.0% 늘었으나 10월(4.8%)에 비교하면 증가세 둔화. 이는 내수가 부진하며,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신호(SG). 다만 산업생산은 연간 증가율의 상승세(5.3%→5.4%)가 지속. 이에 근거하여 국가통계국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
- 한편 11월 70개 주요 도시 신규주택가격은 전월비 0.1% 떨어져 17개월 만에 최저 하락률 기록. 일부에서는 주택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평가

■ 중국 공산당, 가계 소득 촉진을 위해 직접 지원 강화할 방침

-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는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사회보장제도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 독일 12월 Ifo 경기기대지수, 영국 8~10월 실업률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 동향] 트럼프, 강경한 관세정책 예고, SoftBank의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

- **트럼프 당선인, 강경한 관세정책 예고** :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강경한 관세정책을 예고하고,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발언. 루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도 중국 등과의 상호주의를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고 언급. 또한 신규 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10개 폐지, 10억달러 이상 투자에 대한 신속 인허가 등의 개혁도 강조
 - 한편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과 관련하여 취임일(1/20일)까지 모든 인질을 석방하도록 권고. 또한 러·우 전쟁 종식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발언
- **트럼프-손정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 트럼프와 손정의 SoftBank 회장은 SoftBank가 향후 4년간 미국에 10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이 투자는 AI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며,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언급. 이는 '16년 트럼프 당선 직후 약속했던 500억달러 투자 및 5만개 일자리 창출과 유사한 계획
- **트럼프 인수팀, 전기차 정책 전면 수정 예고** :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바이든 행정부 충전소 구축 예산의 국방 및 핵심 인프라 투자 전환 등을 검토. 또한 탄소배출 및 연비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
 - 한편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의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권고

■ [해외시각] 트럼프 2기 외교 정책, 중국과 전략적 경쟁, 중동과는 유가 관련 협력 모색

- **트럼프 2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 관계 개선 모색** :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하는 등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으나, 관세 부과 및 최혜국 대우 철회 등 강경책도 예고. 시진핑 주석은 미중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만 문제의 미국 개입을 경계. 이에 양국은 전략적 경쟁 기조 유지할 가능성(Bloomberg)
- **트럼프의 이란 제재, 사우디와 유가 관련 협력 기대** : 트럼프의 화석연료 기업 규제 완화로 유가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는 감산을 통해 유가를 지지하려는 사우디의 계획과 충돌할 소지. 다만 트럼프의 對이란 제재 강화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사우디가 감산을 중단해도 유가 급락은 피할 수 있을 전망(Retuers)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트럼프의 연준에 대한 압박, 미국유로존 금리 격차 확대로 강화될 전망 - 블룸버그

(US, Europe Rate Divergence in 2025 May Revive Trump Fed Bashing)

- 시장에서는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정체 가능성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 지표 등으로 금리인하 기대가 점차 약화. 반면 유로존은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ECB가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 이러한 전망이 정확하다면,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상황은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달러화 약세 유도과 상충. 이에 트럼프는 연준에 달러화 약세 유도를 위해 금리인하를 시행하도록 압박할 가능성. 향후 트럼프가 연준의 결정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비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Monetary Policy Analytics)

■ 연준의 통화정책, 12월 FOMC 이후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 - 블룸버그

(The Fed Faces an Important Choice After This Rate Cut)

-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고용 및 경제 성장은 양호한 모습. 이에 연준은 2%라는 인플레이션(연율)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 만일 기존의 목표에 집중하여 제약적인 금리를 고집한다면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고,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예외주의도 어려움에 처할 소지
- 이에 연준은 달성이 힘들어 보이는 물가 목표(2%)에 대한 수정이 필요. 다만 기존의 물가 목표를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암묵적으로 목표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놓는 방법이 효과적. 특히 과도한 데이터 의존보다 미래지향적 접근 방식이 경제적 예외주의와 금융 안정 유지에도 긍정적

■ EU의 중국산 수입품 증가 대응, 의견 불일치 등 기존의 한계 극복할 필요 - Financial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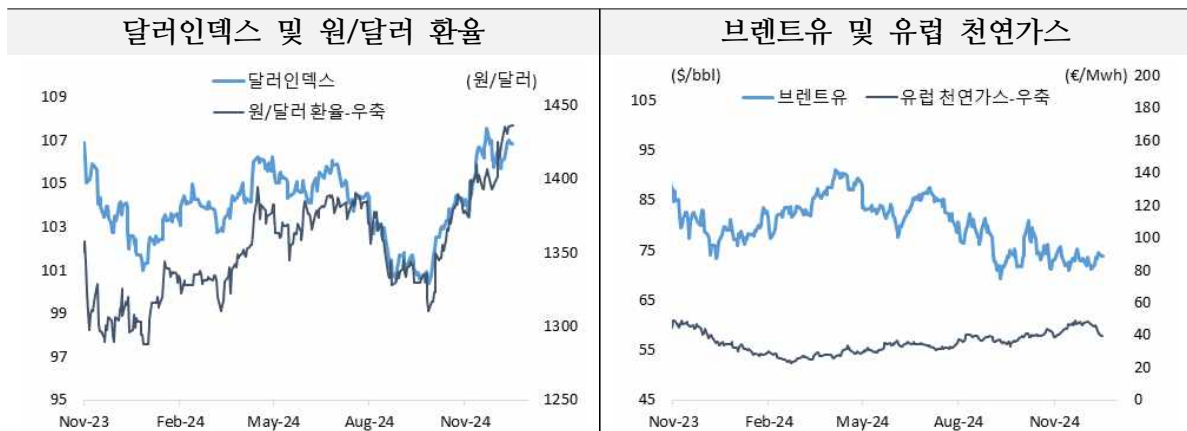
(EU presses for new powers to combat threat of Chinese import surge)

- EU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대규모 역내 수입으로 회원국들의 산업 피해가 예상. 하지만, 엄격한 규정의 통합과 역내 국가들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특히, 수입 제한을 위한 상대국 관세 부과 결정 시, 의견 불일치와 수출 중심의 유로존 무역 구조 등으로 결과 도출에 어려움 가중
- 아울러, 산업 피해에 대한 EU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이에 EU는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기존 조치들에 대한 수정과 새로운 원칙 수립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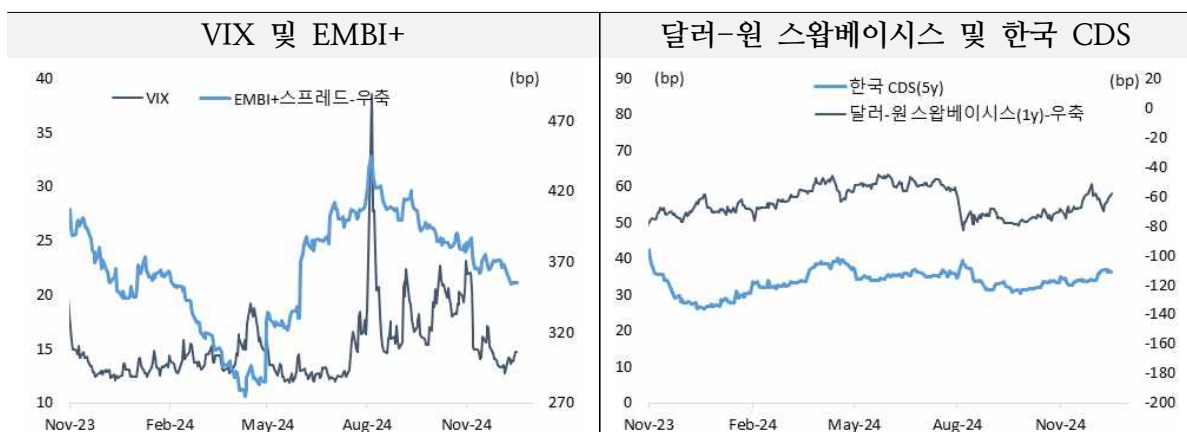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